

# 점토대토기문화의 기원과 전개

박순발

〈목 차〉

I. 머리말	IV. 중국 동북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한반도 유입 과정
II. 극동아시아 농렵구 고고학문화 전개	V. 맺음말
III. 중국 동북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계보와 시간적 위치	

## I.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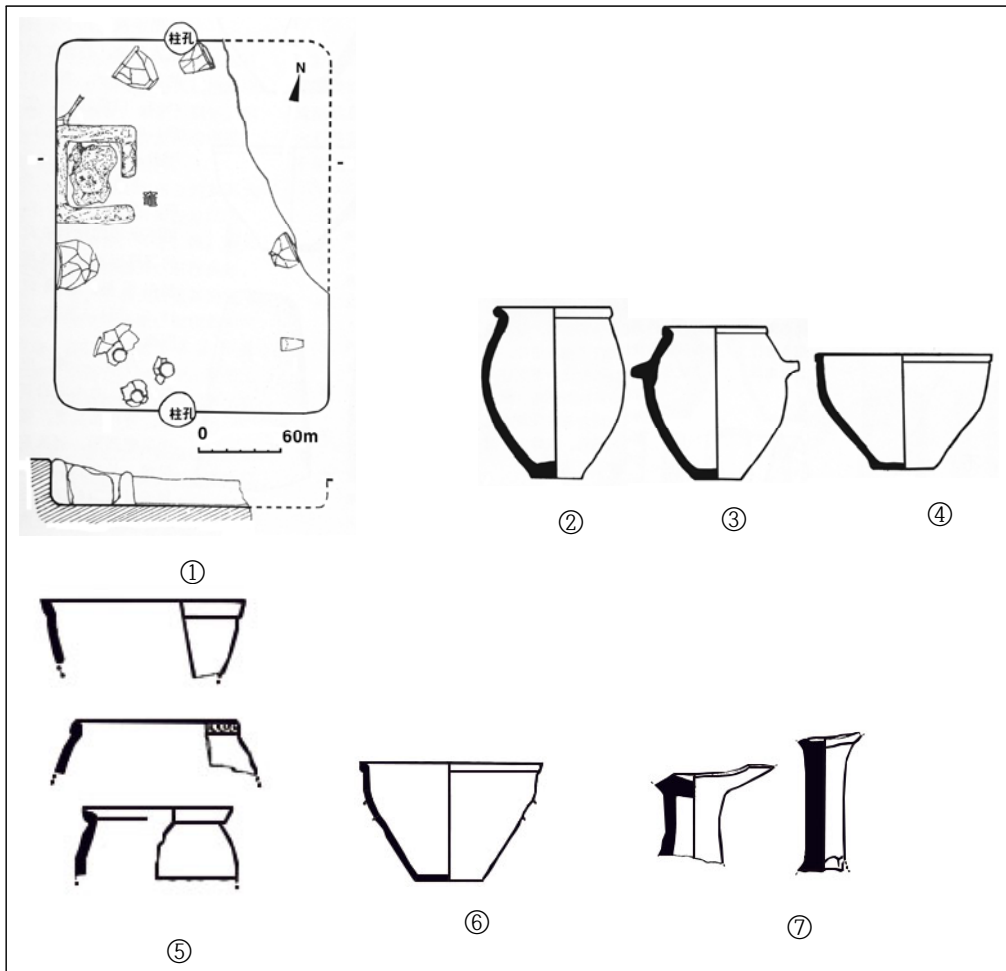
한반도 점토대토기문화가 중국 동북지역에서 기원하였다는 점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그러나 필자가 처음 한강유역의 청동기·초기철기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작성한 글에서 “요동지방의 세형동검문화가 한반도지역으로 파급되면서 나타났다고 생각되는 한강유역의 점토대토기와 흑색마연장경호(朴淳發, 1993a : 140)”로 이해하고, “대동강유역, 황해도지방의 토기에는 남경유적에서 출토된 점토대토기(중략)는 요동지방 이중구연심발형토기의 한 형식으로 생각(朴淳發, 1993a : 160)”한 지 이미 20여년이 경과하였지만, 아직도 학계의 인식에 의견의 불일치나 분명하지 않은 점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한반도 점토대토기문화의 기원과 전개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고고자료 및 연구성과를 취합하여 이 문제에 대한 도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점토대토기문화에 대한 개념규정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점토대토기를 표지로 하는 까닭에 그의 존부만을 근거로 시·공간적인 추적을 하는 데서 야기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함이다. 고고학문화(Archaeological culture)는 복수의 고고학적 동시간대, 즉 Assemblage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유물형식들로 설정할 수 있다. 동시간대의 주거유적, 분묘유적, 기타유적 등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유물형식의 조합이 특정 문화가 되는 것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한반도 점토대토기문화는 점토대토기 심발(筒形罐)·흑색마연토기 장경호·두(豆)·벽부노지(壁付爐址)주거지·위석토광묘(혹은 토광목관묘)·세형동검등 청동기류(혹은 철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시점에서 중국 동북지역에서 이와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고고학문화는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주거유적으로서 주목되어야 하는 것이 선양(沈陽) 신민현(新民縣) 공주툰(公主屯) 허우산(后山) 주

거지이다(周陽生,1992). 출토된 토기들은 모두 구연부에 점토대가 붙은 이른바 첩순관(疊唇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국내학계에서 한반도 점토대토기문화의 원류로서 주목한 적 있는 량취엔(涼泉)문화 유적 가운데는 아직 발굴조사된 예가 없긴 하지만, 중국측 견해에 따르면 취사용기로서 실족력(實足鬲)과 첩순관이 공반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중국 동북지역의 점토대토기문화에 대한 이해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삼족 취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점토대토기만을 량취엔문화로 이해하지는 필자의 제안도 그러한 맥락에서 기인되었다. 나아가 삼족취사기가 없는 요서지역 웨이취엔(水泉文化)을 한반도 점토대토기문화의 원류로 이해하는 입장도 있었다. 이러한 고고자료의 현실에서 공주툰 허우산 주거지 일괄 출토 토기의 구성은 중국 동북지역 점토대토기문화 설정의 중요한 근거로서 다시 한번 주목되어야 한다.

공주툰 허우산 일괄 점토대토기를 근거로 중국 동북지역 점토대토기문화 설정이 가능하다면, 이제 이러한 고고학문화 등장과 관련한 시간적 공간적 맥락을 검토하여야 한다. 각 고고학문화는 그것이 처한 자연환경 및 가능한 생업경제에 대한 토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 동북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전후좌우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를 위한 공간적 범위로서는 한반도 선사 및 고대문화의 원형관으로서 극동아시아 농렵구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하 중국 동북지역 점토대토기문화 형성의 시간적 공간적 맥락, 그 기원지 및 전개 과정 등을 검토한 뒤 한반도 점토대토기문화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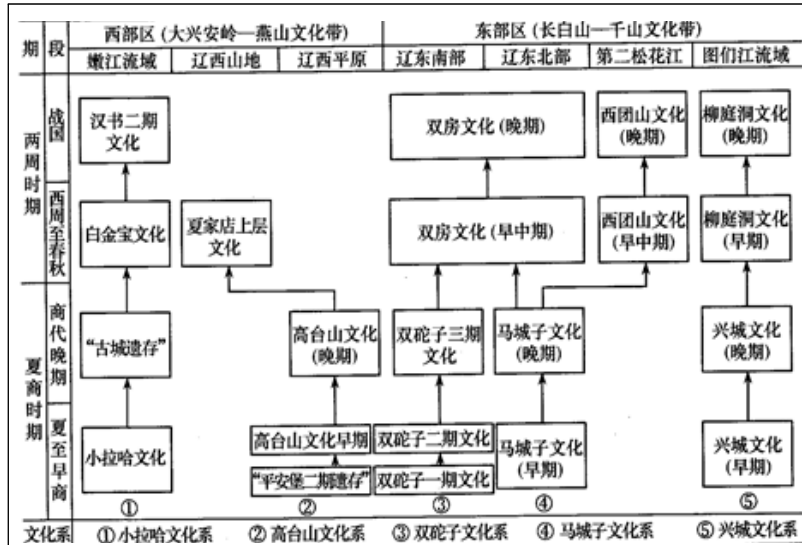


[도 1] 중국 동북지역 점토대토기문화 주거지 및 토기  
 (①~④) 沈陽 公主屯 : 周陽生,1992 수정 ; (⑤~⑦) 錦西 小荒地 : 朱永剛,2000 수정)

## II. 극동아시아 농렵구 고고학문화 전개

고고학문화는 특정 시·공간 범위에 걸쳐 존속하였던 인간집단들이 자연적 혹은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영위하였던 文化(Culture) 행위에 수반되었던 물질자료의 총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고고학문화가 성립될 수 있는 지역은 기후·지형 등 자연지리적인 요소들이 동질적인 공간범위에 해당될 것이다. 한반도 및 중국 동북지역의 자연지리적인 상황을 관찰해보면, 遼河 以東의 長白千山山地는 白頭山을 최고봉으로 하여 한반도 지역과 동일한 자연지리적 범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범위는 小興安嶺 산지를 관통하고 東流하는 黑龍江의 이남, 우수리강

以西, 요동반도 및 遼河 이동의 산지, 그리고 한반도 전체가 그에 해당된다. 신석기시대 이래 이 지역의 생업경제는 漁獵·狩獵·農耕 등이 혼합 영위되었으므로 ‘農獵混合經濟區’라 할 수 있다. 농업문화는 이 지역 이북이나 이동에서는 성공적으로 영위된 바 없으므로 이 지역은 유라시아대륙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농업구라 할 수 있으므로 필자는 이 지역을 ‘極東亞細亞 農獵區’라 부를



것을 제안한 바(朴淳發,2015a) 있다.

자연지리, 역대 고고학문화의 생계경제, 역사적 연관성 등을 근거로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고고학문화구분의 제 견해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동·서 양군으로 구분된다. 그 가운데 한반도 선사 및 고대문화

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 동군으로서 백두산을 최고봉으로 하는 일련의 산지 및 그와 [表 1] 중국 동북지역 고고학문화 계보(趙賓福,2009) 유사한 자연지리적 조건을 구비한 한반도가 포괄된다. 夏代~戰國時代에 이르는 기간의 중국 동북지구 토기문화를 중심으로 파악한 고고학문화의系譜 파악(趙賓福 2009)에 의하면, 동군은 이른바 ‘長白山-千山文化帶’로서 그 서쪽의 ‘大興安嶺-燕山文化帶’와 구분된다.

신석기시대 만기 이래 극동아시아 농렵구에서 확인되는 고고문화는 다음과 같은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農業·漁獵 중심의 생계경제  
 筒形罐 중심 炊事器(三足炊事器 不在)  
 積石墓·石棺墓·支石墓 등 石墓 傳統의 지속  
 琵琶形銅劍·多鈕鏡 등 특징적인 청동기

신석기시대 이른 시기에는 어렵·수렵 위주의 非農耕 생계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였으나 遼東半島 渤海灣 연안에서 성립된 偏堡(피엔푸)문화와 더불어 농경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가

시작되었다. 극동아시아 농렵구의 각 시기 고고문화는 부단히 한반도 지역으로 파급되어 한반도로 대표되는 현재의 한국고고학의 중심 연구 대상이 되었으므로 한반도 고고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극동아시아 농렵구 전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극동아시아 농렵구 최초의 농경문화인 피엔푸문화는 기원전 3,000~2,500년 사이 遼東半島 남단에서 성립되었다(朴淳發,2015b). 細條堆紋과 같은 토기 장식은 山東 大汶口文化에 병행하는 膠東半島의 어 한반도로 대표되는 현재의 한국고고학의 중심 연구 대상이 되었으므로 한반도 고고문화를 이해

[表 1] 極東亞細亞 農獵區 농경문화의 한반도 파급 과정

曆年代	遼東半島 <sup>1)</sup> 南端	鴨綠江·清川江 河口 西海沿岸	大同江流域	漢江流域 以南	韓半島 南端
3,000~ 2,500BC.	偏堡文化	新岩里 I (청등말래유형)	南京 2期		
2,500~2,100BC .	小珠山上層 郭家村上層				二重口緣 土器
2,100~ 1,900BC.	雙砬子1期	新岩里 3地點 1文化層(彩繪陶)			泗川 舊坪里
1,900~ 1,400BC.	雙砬子2期	新岩里 3地點 2文化層	角形土器	漢沙里類型	晉州 平居洞(突帶紋 土器+彩繪陶)
1,400~ 1,100BC.	羊頭窪文化		角形土器	可樂洞類型	
1,100~ 戰國時期	雙房文化	新岩里 3地點 3文化層	角形土器	欣岩里類型 驪三洞類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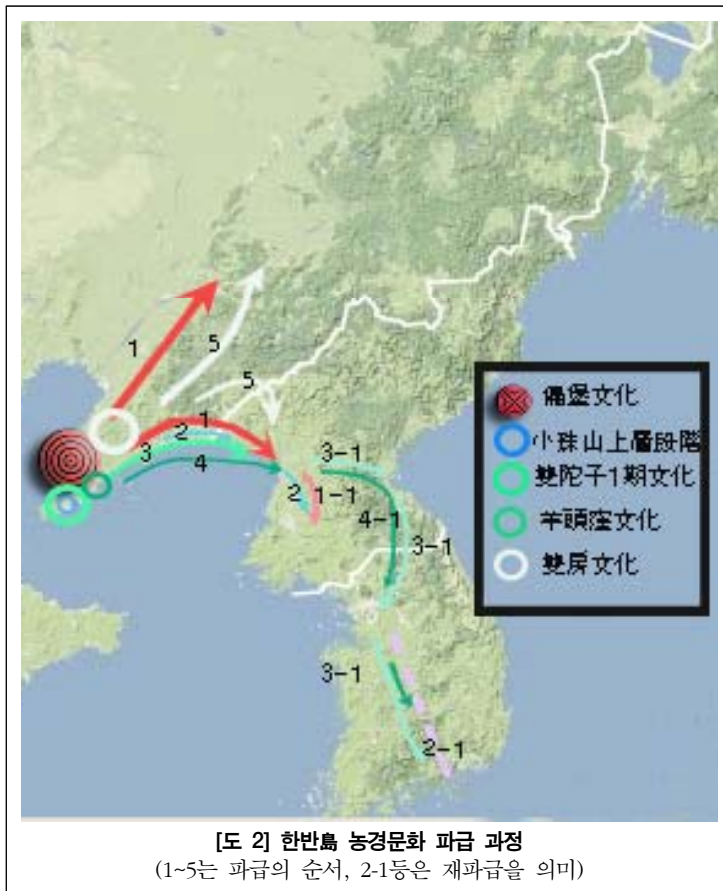
하기 위해서는 극동아시아 농렵구 전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극동아시아 농렵구 최초의 농경문화인 피엔푸문화는 기원전 3,000~2,500년 사이 遼東半島 남단에서 성립되었다(朴淳發, 2015b). 細條堆紋과 같은 토기 장식은 山東 大汶口文化에 병행하는 膠東半島의 邱家庄期~北庄期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附加堆紋 통형관 등의 炊事器와 본격적인 농경 개시의 증거가 되는 桂葉形 有孔石刀 등의 문화요소는 紅山文化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기원전 2,000년경에 등장하는 石墓 傳統 역시 紅山文化와의 관련성이 높다.

피엔푸문화는 이후 千山山地 西北麓을 거쳐 沈陽 등 遼中 지역으로 북상하는 한편, 천산산지 南麓 서해연안을 따라 한반도 鴨綠江·清川江 하구 연안 일대로 파급된다. 이곳에서 停留하다 끝이어 遼東半島 남단 지역에서 小珠山上層·雙砬子1期 문화 등의 後續波의 도래와 더불어 한반도 중남부 지역으로 확산되어 신석기시대 만기의 이중구연토기 등장 배경이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한반도 남단 泗川 舊坪리와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 한편, 기원전 2,500~2,000년 무렵 피엔푸문화 특유의 縱向 細泥條紋·陰刻線紋의 부가되문은 무문화된 부가되문으로 변천하였고 이것이 한반도 중남부 지역으로의 파급되면서 突帶紋土器로 대표되는 漢沙里類型으로 등장하였다. 雙砬子1기 문화 이후 성행하였던 彩繪陶가 압록강하구 龍泉郡 新岩里 제3지점 1문화층과 晉州 平居洞에서 공히 발견되는 것은 그러한 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부가되문이 이중구연토기로 대체된 羊頭窪文化 역시 천산산지 남쪽을 거쳐 압록강·청천강 하구 서해연안에 파급되어 新岩里 3지점 2문화층의 형태로 확인되며, 이어서 元山灣을 거쳐 한반도 중

1) 小珠山上層·郭家村上層은 小珠山上層文化로 통칭되는데, 그와 雙砬子 1期文化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동시기의 상이한 문화로 보는 견해와 동일문화의 시기적 선후관계로 보는 견해가 있다. 본고는 최근 연구성과(張翠敏 2012)에 따라 시기적 선후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다만 小珠山上層문화와 雙砬子 1기의 점점의 曆年代는 분명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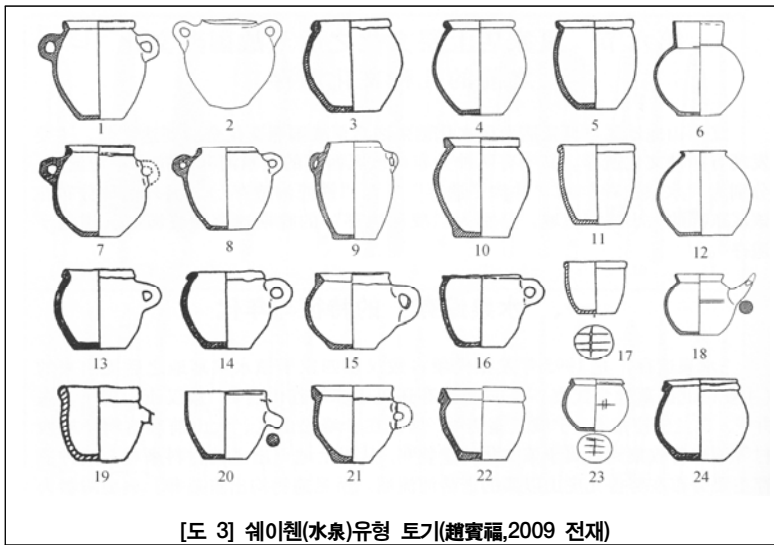
남부지역으로 파급되어 가락동유형으로 정착된다. 그 이후 기원전 1,100년 전후 성립된 雙房文化는 북상하는 흐름에 비해 東傳의 기류는 상대적으로 약하여 한반도에서는 淸川江·大同江 유역 이북에 그 영향이 국한되었다.

이상 일별해본 극동아시아 농립구의 역대 고고학문화 전개 과정에서 주목되어야 할 점은 부가퇴문 혹은 이중구연 통형관이 기본적인 취사용기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점토대토기문화의 특징적인 통형관 역시 그 연장선에 있음은 물론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시 후술할 것이다.

### III. 중국 동북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계보와 시간적 위치

중국 동북지역의 점토대토기문화의 계보에 대한 이해는 아직 분명하지 않아 그를 둘러싼 검토가 진행된 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출된 문제로는 점토대토기문화 요서지역 기원설(李成載,2007)과 점토대토기문화 미송리형토기 비공반설(김미경,2009) 등이 있다. 여기서는 이 문제들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한다.

먼저, 점토대토기 요서 기원설이다. 이 견해는 1995년 츠핑(赤峰) 아오한치(敖漢旗) 웨이첸(水泉) 유적에서 발굴된 110기 가량의 무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편년안(郭治中,2000)에 토대를 두고 있다. 웨이첸 복구 무덤 출토품을 근거로 설정한 ‘웨이첸유존(遺存)’·‘웨이첸유형(類型)’·‘웨이첸문화(文化)’ 등의 명칭에서 보듯 그 고고학적 실체에 대한 자리 메김이 아직 확실치 않다. 웨이첸 남구 무덤 출토품은 그와 별도로 ‘링허(凌河)유존’·‘링허유형(類型)’·‘링허문화(文化)’로 분류한



[도 3] 웨이첸(水泉)유형 토기(趙賓福,2009 전재)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趙賓福,2009 : 98) 제기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초 제시된 편년안에 대해서도 비판과 더불어 수정안이 제시된 바(付林·王立新,2012 ; 潘玲·于子夏,2013) 있다. 종래 이른 시기로 비정되었던 [도 3]의 單耳 혹은 兩耳 과수부 점토대 토기는 [도 4]에서 보듯

类型	夹砂罐				夹砂单把杯				断代参考器物
	A型		B型		A型		B型		
三期	5段	3, 7	10, 13, 9, 12	17, 20, 16, 19	22	30			
	4段	2, 6	11	15, 18, 21					
二期	3段	5, 8		14	28, 29				
	2段	4			27				
一期	1段	1			23, 24, 25				

[도 4] 링허(凌河)유형 토기 편년(付林·王立新,2012)

2기 이후로 수정되었다. 그러한 수정안에 따르면 링허유형 제1기는 春秋 早期<sup>2)</sup>(기원전 770~670), 제2기는 춘추 中·晚期(기원전 669~476), 제3기는 戰國 早·中期(기원전 475~310) 등으로 비정된다.

이러한 최근 중국 학계의 견해들을 종합하면, 웨이첸문화는 링허문화보다 결코 시기적으로 앞서지 않으며(郭大順·張星德,2005 : 492~493 ;

付林·王立新,2012), 요서 대·소능하 유역의 링허문화는 요동지역의 곡인동검문화·침순(疊疊)통형 관문화가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郭大順·張星德,2005 : 512 ; 趙賓福,2009 : 294~295 ; 陳平,2006 : 481~482 ; 付林·王立新,2012).

2) 춘추전국시대의 고고학적 시기구분은 劉德彪·吳磐軍,2004에 의해 다음과 같은 비정에 따른다. 西周 早期 : 기원전 1134~기원전 1002, 西周 中期 : 기원전 1001~기원전 879, 西周 晚期 : 기원전 878~기원전 771, 春秋 早期 : 기원전 770~ 기원전 670, 春秋 中期 : 기원전 669~기원전 570, 春秋 晚期 : 기원전 569~기원전 476, 戰國 早期 : 기원전 475~기원전 390, 戰國 中期 : 기원전 389~기원전 310, 戰國 晚期 : 기원전 309~기원전 221

현재까지 알려진 고고자료로 보는 한 점토대토기문화 요서 기원설은 이상과 같은 최근 중국 학계의 진전된 연구 성과를 반영할 수 없었던 무렵의 산물이다. 점토대토기문화 요서 기원설과 표리관계에 있는 입장에서 비파형동검 요서 발생설(靳楓毅, 1982) 역시 요동 쌍광(雙房)문화 기원설(郭大順·張星德, 2005 : 512 ; 陳平, 2006 : 481~482)로 대체되었다.

점토대토기문화의 요서 지역관으로서 링허유형의 성립과 관련해서 최근 趙賓福(2015)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쌍광문화가 북상하여 요동북부에 이른 후 다시 서쪽으로 遼西 平原區를 거쳐 마침내 요서 산지구에까지 세력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라오루얼후산(老魯爾虎山)以西의 대소릉하유역에 지방유형인 링허유형을 형성한다.” 쌍광문화의 이러한 북상에 의해 요동북부의 기존 문화 가운데 하나인 쩌러(新樂)상층문화<sup>3)</sup>는 북쪽으로 밀려 시환산(西團山)문화로 발전하였으며, 요서평원 재지 문화인 까오타이산(高台山)문화는 서쪽 퇴각하여 썬자텐(夏家店)상층문화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와 거의 같은 계보관은 陳平(2006)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비파형동검을 특징으로 하는 쌍광문화는 西周 중기에 요서지역의 대소릉하유역으로 전파되어 최종적으로 서주 만기~춘추·전국시기의 스얼타이잉쯔(十二臺營子)유형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선양(沈陽) 지역에서 현지의 까오타이산문화와 쌍광문화 요소가 결합되어 라호후충(老虎沖)유종이 먼저 성립되고 그것이 정자아위쯔(鄭家窪子)유형으로 발전한 것이라 파악하였다.

이로써, 점토대토기문화 요서 기원설은 그 근거가 없으며, 앞 절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점토대토기 특유의 뽕뽕은 극동아세아 농렵구 특유의 부기퇴문 및 이중구연 통형관의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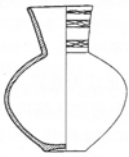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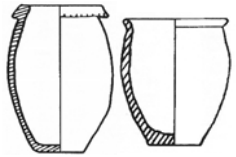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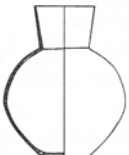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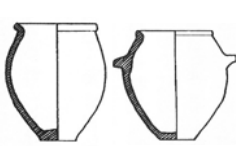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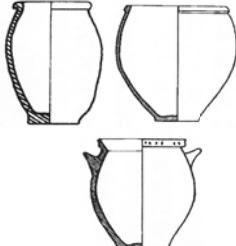


다음, 중국 동북지역 점토대토기문화 미송리형토기 비공반설이다. 필자는 전고(朴淳發, 2004)에서 西豐縣 忠厚屯 유적에서 점토대토기 심발의 구연부편으로 추정되는 파편과 美松里型土器 구연부 및 동체부편으로 판단되는 토기편들이 공반된 것을 근거로 요녕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제 I 단계(기원전 800~600년경)에는 점토대토기와 미송리형토기가 공반되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그러나 점토대토기문화 요서 기원설 입장에서는 이러한 공반관계는 성립될 수 없으므로 국내의 연구자들 다수는 미송리형토기를 중국 동북지역 점토대토기문화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자 하였다(李成載, 2007 ; 김미경, 2009).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점토대토기 요동 쌍광문화 기원설 입장에서 보면 미송리형토기와 점토대토기의 공반은 지극히 자연스러우며, 의문의 여지가 없다. 요녕 점토대토기문화 제 I 단계 파급의 결과로 이해한 평양 남경유적에서 점토대토기와 변형 미송리형토기가 공반된 점은 그러한 사정을 잘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쌍광문화는 라오둥반도 남단의 선행 문화인 雙砬子3기문화 혹은 羊頭窪文化에 기반을 두고 馬城子文化 晩期의 영향도 받아 西周 早期, 즉 기원전 1,100~1,000년 무렵에 성립된 것으로서, 이후

3) 趙賓福(2015)은 이전의 ‘마칭쯔(馬城子)문화’를 ‘쩌러(新樂)상층문화’로 고쳐 부르고 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확산되고 일부는 한반도 압록강·청천강 하구 지역의 미송리형토기로 나타난다. 수왕광문화를 대표하는 토기상은 無耳壺(즉 長頸壺), 橫耳壺(즉 미송리형토기), 豎耳壺(즉 縱耳把手壺), 疊脣罐(이중구연토기 및 점토대토기), 그리고 豆 등으로서, 이들 각 종류의 기형 변화에 근거하여 조기·중기·만기 등 3분기 편년안(趙賓福, 2009 : 162~169)이 제시되어 있다. 조기는 서주시기, 중기는 춘추시기, 만기는 전국시기로 각각 비정되고(趙賓福, 2009 : 175) 있다.

分期	無耳壺 (長頸壺)	橫耳壺 (美松里型土器)	疊脣罐 (粘土帶土器)	豎耳壺	豆
早期					
中期					
晚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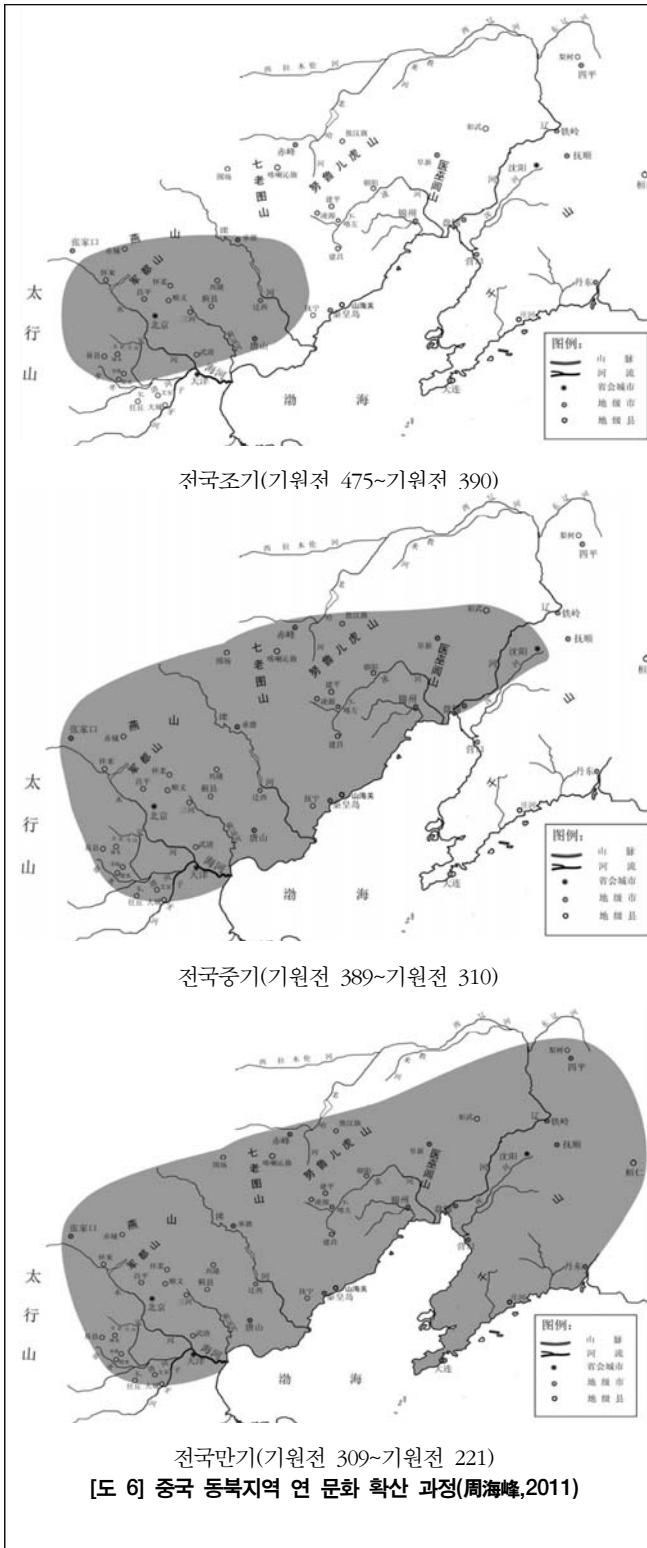
[도 5] 쌍방(雙房)문화 토기 편년(趙賓福, 2009 수정)

#### IV. 중국 동북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한반도 유입 과정

필자는 중국 동북지역의 점토대토기문화의 한반도 정착 과정과 관련하여 遼寧지역의 점토대토기 포함 유적들에 대한 편년안을 제시하고 그와 비교되는 한반도 지역 점토대토기 출현 과정에 대해 검토한 바(朴淳發 2004) 있다. 그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반도 細形銅劍期の 표지적인 토기문화인 점토대토기문화는 西豊, 昌圖, 開原, 撫順, 本溪, 遼陽 등지 및 근접 평원지대인 鐵嶺, 沈陽 등지의 약 200×100km의 범위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토기상 등에 의해 크게 3 단계로 구분 가능하다.

제 I 단계는 기원전 800~600년경에 해당되는데, 요녕지역 琵琶形銅劍 前期와 병행되는 것으로서 斷面圓形粘土帶土器와 美松里型土器가 공반된다.



[도 6] 중국 동북지역 연 문화 확산 과정(周海峰,2011)

제 II 단계는 遼北 및 遼中지역이 중심이 되는 이른바 涼泉文化의 단면원형점토대토기로 대표되는데, 그 시간적인 범위는 기원전 600~300년경이다. 이 단계에는 미송리형토기 대신 흑색마연 장경호, 高柄豆(혹은 柱柄豆), 環形 또는 組合牛角形把手 등으로 구성된 토기상을 보인다.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는 많지 않으나 공반 銅劍의 형식 발전 단계 및 토기상의 차이를 토대로 기원전 600~400년 기간의 비과형동검 중후기 형과 병행하는 II-1기와 기원전 400~300년 동안의 세형동검과 병행하는 II-2기로 세분 가능하다.

제 III 단계는 戰國 燕의 영향이 나타나는 단계로서 燕 秦開의 東侵 시점인 기원전 300년경 이후부터 기원전 200년경의 前漢初까지 기간에 해당한다. 종래의 단면원형점토대토기와 더불어 斷面三角形粘土帶土器가 새로이 모습을 보이며, 戰國末-漢初의 打捺文土器도 생활용기로 정착되고 鑄造된 鐵鎌, 鐵斧, 鐵鏝, 半月刀 등 철기가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지금까지 확인된 한반도 점토대토기문화를 요녕 점토대토기문화와 대비해 보면 제 I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일부 압록강유역이나 대동강유역에 유입되기도 하였으나 그 영향은 지속적이지 않은 채 재지문화에 흡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 II-2 단계의 말기인 기

원전 300년에 일어난 燕과 古朝鮮의 무력 충돌을 계기로 燕秦漢 長城 주변에 위치한 요녕 점토대 토기문화인들은 다수 한반도 지역으로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경로는 西海岸 海路와 함께 鴨綠江流域-淸川江流域-元山灣을 경유한 陸路도 동시에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江原 嶺東 지역이나 嶺南 지역의 점토대토기문화가 후자의 루트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II-2 단계 요녕 점토대토기문화 이주민들은 토착 무문토기인들을 基層으로 재편하면서 새로운 細形銅 劍文化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大規模 移住 이후에도 전국말-한초의 철기문화를 소지한 요녕 점토대토기문화인들이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추가로 유입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크게 변함이 없으나, 冒頭에서 설정한 바와 같이 한반도 중남부지역 까지 파급된 점토대토기문화는 선양 공주툰 일괄자료와 가장 유사성이 높은 점으로 보면 그 파급 시기 및 출발지 등에 대해서는 약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앞 서 [도 5]에서 보듯 甌靑문화에는 시종 미송리형토기가 공반되지만, 한반도 중남부 점토대토기문화에는 미송리형토기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파급의 출발지가 요동지역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점은 대소릉하 유역의 링허유형에서는 미송리형토기의 공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써, 최초 한반도 중남부 지역 파급 점토대토기문화는 요서지역의 링허유형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필자는 요녕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제 III단계 파급의 계기를 燕 秦開의 동침 시점으로 보았으나, 최근 요서지역에 확산되는 전국 燕 문화의 파급 양상이 일시적이 아니라 점진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喬梁,2010 ; 周海峰,2011) 비교적 긴 시기폭을 가지고 중국 동북지역의 점토대토기 문화가 한반도 중남부지역으로 파급되었을 가능성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소릉하 유역에 전국 연 문화가 확산되는 시기는 전국 중기(기원전 389~310), 전개의 동침과 더불어 설치된 燕5郡은 전국 만기(기원전 309~221)로서 이 무렵에 이르러 요동지역도 연 문화로 대체되기 때문이다(朴淳發,2015c).

전국 중기 이후 대소릉하 유역의 링허유형은 연 문화로 대체되는데, 이 무렵 일부 링허유형 주민이 요동지역을 경유하거나 해로로 직접 한반도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요동지역까지 연 문화가 확산되는 전국 만기에 더욱 큰 규모로 한반도 지역 이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비파형동검문화를 대상으로 형성기, 발전 융합기, 東退期 등 3단계 편년안(郭大順·張星德 2005 : 484~503)에 따르면, 雙房類型은 최초로 비파형동검을 제작·사용하다가 발전 융합기에 요서의 十二臺營子類型(기원전 900~800년), 遼中の 鄭家窪子類型·遼東半島의 後雙房類型(기원전 550~450년) 등 각지로 확산 발전하였다. 동퇴기는 요서로 확장되었던 범위가 동쪽으로 축소되면서 동시에 비파형동검이 세형동검으로 변화되는 단계로서 기원전 300~200년 무렵에 해당되는데,

이는 연 5군 설치 시점과 병행한다.

## V. 맺음말

점토대토기문화는 한반도의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에 걸치는 것으로서 그 출현과 전개에 대한 이해는 한반도 선사 및 고대문화 이해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필자는 1987년에 작성하여 1993년에 공刊된 「한강유역의 청동기·초기철기문화」 이래 점토대토기문화의 중국 동북지역 기원 가능성을 타진해 왔으며, 그 후 몇 차례의 보완적 검토를 통해 한반도 점토대토기문화의 중국 동북지역 기원설 성립을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기원지인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점토대토기문화에 대한 개념 규정의 미비와 함께 구체적으로 그 기원지를 두고 요서 기원설과 요동 기원설이 양립하는 등의 미해결 과제도 있었다. 금번 본고를 통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검토를 진행한 바 그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반도 중남부지역까지 파급된 점토대토기문화는 선양(沈陽) 공주툰 허우산 주거지 일괄자료가 가장 유사하다. 벽부노지의 주거지와 함께 점토대토기로만 구성된 것으로서 그간 지표조사 자료 중심으로 설정된 량첸(涼泉)문화에 혼입된 鬲과 같은 삼족 취사기는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 동북지역 점토대토기문화에 美松里型土器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미송리형토기 비공반설은 멀리는 비파형동점 요서 기원설 및 그와 표리 관계에 있는 점토대토기 요서 기원설에 따른 것으로서 잘 못임이 드러났다. 중국 동북지역의 점토대토기문화는 필자의 극동아세아 농렵구에서 형성되어 遼中 및 遼北을 거쳐 서남쪽으로 확산되어 대소농하 유역의 링허(凌河)유형을 성립한 쌍광(雙房) 문화 중기의 토기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현 단계의 도달점이다. 그 과정에서 선양을 중심으로 하는 극동아세아 농렵구 서단에서 형성된 정자와쓰(鄭家窪子)유형은 시기적으로 링허유형과 병존하던 쌍광문화의 두 가지 지방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이들의 성립 시점은 대략 기원전 800~700년 사이의 서주 만기~춘추 초기 무렵으로 비정할 수 있다.

요서 대소농하 유역의 링허유형은 기원전 400~300년 기간에 점차 확산된 전국 연 문화의 파급과 더불어 소멸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주민의 요동지역 및 한반도 지역 이주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중남부지역 점토대토기문화에 미송리형토기가 공반되지 않은 점이나 출현 시점의 역연대가 기원전 300년 이전으로 소급되는 사례들을 설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필자가 기원전 300년 이후로 설정한 바 있는 중국 동북지역 점토대토기문화 제III단계의 대규모 파급은 여전히 주목되어야 하며, 그 배경은 전국 연 秦關의 동침과 그에 이은 燕5郡 설치와 같은 정치·군사적 동향과 무관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2015년 10월 11일 草稿)

〈참고문헌〉

【國文】

- 金美京, 2009, 「遼寧地域 青銅器時代 土器文化圈 設定에 관한 再檢討-涼泉文化를 中心으로-」, 『湖西考古學』 21.  
 朴淳發, 1993a, 「한강유역의 청동기·초기철기문화」, 『한강유역사』, 민음사.  
 1993b, 「우리나라 초기철기문화의 전개과정에 대한 약간의 考察」, 『考古美術史論』 3, 忠北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2004, 「遼寧 粘土帶土器文化의 韓半島 定着 過程」, 『錦江考古』 創刊號.  
 2015a, 「極東亞細亞 農獵區 設定」, 『百濟研究』 61.  
 2015b, 「偏堡文化의 形成과 展開」, 『韓國青銅器學報』 16.  
 2015c, 「고고학적으로 본 요서(遼西)지역」, 『쟁점 백제사VII-요서 백제』, 한성백제 박물관.  
 李成載, 2007, 「중국동북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전개과정 연구」, 崇實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中文】

- 喬 梁, 2010, 「燕文化進入前的遼西」, 『內蒙古文物考古』 第2期.  
 郭大順·張星德, 2005, 『東北文化與幽燕文明』, 江蘇教育出版社.  
 郭治中, 2000, 「水泉墓地及相關問題之探索」, 『中國跨世紀的回顧與前瞻』, 科學出版社.  
 靳楓毅, 1982,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的文化遺存(上)」, 『考古學報』 第4期.  
 潘 玲·于子夏, 2013, 「朝陽袁台子甲類墓葬的年代和文化因素分析」, 『北方文物』 第1期.  
 付 林·王立新, 2012, 「朝陽袁台子周代墓葬的再分析」, 『北方文物』 第3期.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朝陽市博物館, 2010, 『朝陽袁台子-戰國西漢遺址和西周至十六國時期墓葬』, 文物出版社.  
 王立新, 2004, 「遼西區夏至戰國時期文化格局與經濟形態的演進」, 『考古學報』 第3期.  
 趙賓福, 2009, 『中國東北地區夏至戰國時期的考古學文化研究』, 科學出版社.  
 2015, 「從竝立到互動：遼寧青銅時代的文化格局」, 『遼寧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43卷 第1期.  
 周陽生, 1992, 「新民縣公主屯后山青銅器時代遺址調查」, 『遼海文物學刊』 第2期.  
 朱永剛, 1997, 「大·小凌河流域含曲刃短劍遺存的考古學文化及相關問題」, 『內蒙古文物考古文集』 第二輯,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000, 「錦西部集屯小荒地出土的曲刃青銅短劍與屠何故城」, 『文物春秋』 第1期.  
 周海峰, 2011, 『燕文化研究-以遺址·墓葬爲中心的考古學考察』, 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  
 陳 平, 2006, 『北方幽燕文化研究』, 群言出版社.